

## 서사문(叙事文)

마사오카시키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

朱 根玉 역

### 각주

1) 마사오카시키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 1867~1902): 일본의 시인, 일본 국어학 연구가이다. 하이쿠(俳句; はいく), 단카(短歌; たんか), 신타이시(新体詩; しんたいし), 소설, 평론, 수필을 위시해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일본의 근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메이지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징이 있는 문학가 중 일인이다. (역자주)

2) 스마(須磨; すま)는 옛 셋쓰노 쿠니(摂津国; せつつのくに)의 지명. 현재 효고(兵庫; ひょうご) 현 고베시(神戸市; こうべし) 스마(須磨; すま) 구. (역자주)

2) 마사오카시키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는 여기서 수사의 사용을 부정하고 있는데, 에즈러 파운드(Ezra Pound)도 “와동주의(Vorticism; 1914)에서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The other sort of poetry is as old as the lyric and as honourable, but, until recently, no one had named it. Ibycus and Liu Ch'e presented the “Image.” Dante is a great poet by reason of this faculty, and Milton is a wind-bag because of his lack of it. The “image” is the furthest possible remove from rhetoric. Rhetoric is the art of dressing up some unimportant matter so as to fool the audience for the time being. So much for the general category. Even Aristotle distinguishes between rhetoric, “which is persuasion,” and the analytical examination of truth. As a “critical” movement, the “Imagisme” of 1912 to '14 set out “to bring poetry up to the level of prose.” No one is so quixotic as to believe that contemporary poetry holds any such position. . . . Stendhal formulated the need in his De l'Amour:-(또 다른 종류의 시는 서정시만큼 오래되었고 그것만큼 고결하지만, 최근까지 아무도 명명하지 않았다. 이비쿠스(Ibycus)와 나의 시 유철(劉徹, Liu Ch'e)은 ‘이미지’를 나타냈다. 단테는 이러한 능력으로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 밀턴은 그것의 결핍으로 다변가가 되었다. ‘이미지’는 수사(rhetoric)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수사는 눈앞의 청중을 속이기 위하여 보잘것없는 것을 걸치장하려는 술책이다. 일반적 범주를 위해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계략적 설득으로서의 수사”와 진리의 분석적 고찰을 구별하고 있다. 1912년에서 1914년까지의 “임계적(critical)” 활동은 시를 수사가 없는 산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오늘날의(contemporary) 시가 그러한 수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 다시 말해서 돈키호테적 공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탕달은 그의 소설 ‘연애론’에서 산문의 필요성을 형식화했다.). (역자주)

3) 하리마나다(播磨灘; はりまなだ):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せとないかい) 동부, 아와지시마(淡路島; あわじしま)와 쇼우도시마(小豆島; しょうどしま) 사이에 있는 해역. 1. 아와지시마(淡路島; あわじしま); 일본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동단부에 있는 섬. 일본 제3의 큰 섬으로 행정상 효고현(兵庫縣)에 속한다. 중심 도시는 스모토(州本; すもと)이다. 아와지는 아와지 섬 전역을 차지했던 국(國: 일본의 지방 행정 단위)의 이름이다. 혼슈(本州; ほんしゅう)로부터 시코쿠(四國; しこく)의 아와(阿波; あわ; 지금의 도쿠시마 현)에 이르는 길이라 해서 아와지(阿波路; あわじ)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아와지 섬은 남북으로 가늘고 긴 삼각형 모양의 지



괴(地塊; ちかい; 사방이 단층면으로 한정된 땅덩어리)로 되어 있다. 북쪽은 아카시 해협(明石海峡), 남동쪽은 토모가시마스이도우(友ヶ島水道; ともがしすいどう), 남서쪽은 나루토(鳴門; なると) 해협으로 혼슈, 시코쿠와 나누어진다. 북부의 쓰나(津名; つな) 구릉, 남부의 유즈루하(諭鶴羽; ゆづるは) 산지 사이에 아와지 평야가 있다. 기후가 온난하며 집약

농업이 발달하였는데 쌀·보리·양파·감귤·화훼 재배가 성하다. 2. 小豆島(しょうどしま); 면적 약 153.30km<sup>2</sup>이다. 해안의 총길이가 126km에 이른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올리브를 성공적으로 재배해서 올리브섬(Olive Island)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가가와현(香川県; かがわけん)에 속하며 현의 수도인 다카마쓰(高松; たかまつ)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기슭 간 최단 거리가 9.93m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해협인 도후치해협(土淵海峡; どふちかいきょう)이 있다. 일본에서 국내 관광지로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후치(土淵; どふち) 해협이나 칸카이협곡(寒霞溪; かんかけい)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올리브, 야생원숭이, 그리고 해변으로도 유명하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올리브 관련 상품은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편이다. 그리스 밀로스섬(Milos)의 자매섬이다. 섬 이름은 말 그대로 “작은 콩의 섬”이라는 뜻이다. (역자주)

4) 敦盛(あつもり)는 일본의 전통 연극인 노우(能; のう)의 공연 작품 중 하나로, 겐페이(源平; げんべい) 전쟁 시기 다이랴노 아쓰모리(平敦盛; たいらのあつもり)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겐페이 전쟁의 주요 전투인 이치노다니 전투(一ノ谷の戦い; いちのたにのたたかい)에서 다이랴노 아쓰모리(平敦盛; たいらのあつもり)는 적장 구마가이 나오자네(熊谷直実; くまがいなおざね)와의 싸움 끝에 전사한다. 나오자네는 아쓰모리 토래의 아들이 있어서 그를 살려주려고 하나, 거절 당해 슬퍼하며 목을 잘랐다고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나오자네는 인생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였다고 한다. 센고쿠(戦国; せんごく) 시대의 주요 다이묘(大名; だいまょう)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おだのぶなが)가 즐겨 불렀던 것으로 유명하다. 노부나가는 세력 확장의 계기가 된 오케하자마 전투(桶狭間の戦い; おけはざまのたたかい) 출전 직전에 「아쓰모리」를 부르고 나가 적장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 いまがわよしもと)의 목을 베었다고 전해진다. (역자주)

5) 현 兵庫県神戸市垂水区塩屋町(ひょうごけん こうべし たるみく しおやちょう). (역자주)

6) 五輪塔(ごりんとう): 1. 밀교에서 말하는 5대(五大)를 지칭. 원, 삼각, 반월, 보석의 형태를 상징하며, 그것을 아래에서 위로 탑 형태로 쌓은 것. 아래로부터, 지륵(地輪), 수륵(水輪), 화륵(火輪), 풍륵(風輪), 공륵(空輪)을 나타낸다. 나무, 금속 등으로도 만들지만 돌로 만든 것이 더 많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이래 일본 석탑의 주류가 되었다. 원래 밀교계의 탑이지만, 가마쿠라(鎌倉) 시대부터 종파를 초월하여 이용되고 있다. 2. 地·水·火·風·空의 5대를 사각형, 원형, 삼각형, 반월형, 보석형의 돌 등으로 모양을 만들어, 차례로 쌓아 올린 탑. 헤이안 중기 경 밀교에서 창시되어, 다이니치 여래(大日如来; だいにちによらい)를 의미했지만, 나중에 공양탑, 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역자주)



7) 1. 노우(能: のう) 松風(まつかぜ) 속의 와카(和歌, わか) 일수(一首). 2. 조염(藻塩): 해초를 바닷물로 적셔 솔에서 끓여 소금을 채취하는 것. 원문은 “わくらはに問ふ人あらば”만 있는데, 한 수 모두를 번역했다. 또 다른 한 수도 있다. 3. 이나바 산((因幡山/稻羽山/稻葉山; いなばのやま): 돗토리시(鳥取市, とっとりし) 동부에 있는 산. 높이 249m.

わくらはに問ふ人あらば須磨の浦に藻塩たれつゝわぶと答へよ.

우연히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스마 해변에서 조염(藻塩: もしお)의 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것처럼 울며 외롭게 살고 있다고 대답해 주게. -在原行平

立ち別れいなばの山の峰に生ふる待つとし聞かばいま帰り来ん.

작별하고 이나바(因幡: いなば)에 가고 있는 몸이지만, 이나바 산(因幡山: いなばのやま) 봉우리의 소나무처럼 서 있는 나에게, 돌아오겠냐고 묻는다면, “곧 돌아가겠습니다.” -在原行平

아리와라노유키히라(在原行平, ありわらのゆきひら. 818~893): 헤이제이(平城, へいぜい) 천황의 아들 아보(阿保, あぼ)의 아들, 즉 손자. 平安(へいあん) 前期(전기)의 歌人(かじん) 아리와라노나리히라(在原業平, ありわらのなりひら)의 이복형. 몬토쿠 천황(文徳天皇, もんとくてんのう, 826년~858) 재위 850년 무렵에, 잘못을 범하여, 일시 스마(須磨)에 유배된 적이 있다. (역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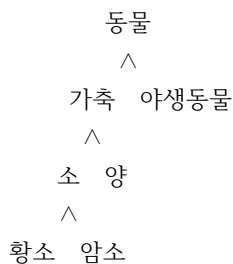
8) 左義長(三稜杖; さぎちょう): 정월 보름날에 궁중에서 행하는 악귀를 쫓는 행사. 민간에서 카도마쓰(門松; かどまつ) 따위 설날의 장식물을 불태우는 ‘どんど’에 해당하는 것. 爆竹(どんど): 정월 보름날 문 앞에 세워 놓은 카도마쓰나 대문 위에 매단 금줄(標繩; しめなわ) 따위를 모아 불태워버리는 행사. 또, 그 불로 구운 떡을 먹는 일. 門松(かどまつ): 새해에 문 앞에 세우는 장식 소나무(정식으로는 대나무를 곁들이고, 약식으로는 솔가지 하나에 금줄만 댄). (역자주)

9) 칸고리(寒ごり・寒垢離: かんごり): 한중(寒中)에 냉수욕을 하면서 신불(神仏)에게 기원하는 일. (역자주)

10) 不動明王(ふどうみょうおう): 화재를 등에 지고 무서운 얼굴로 오른손에는 검(劍), 왼손에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밧줄(羅索)을 갖고 있는 후도우묘우오우(不動明王)는 악마 제거, 재난, 병 제거의 수호신이다. (역자주)

11) “…只其風俗儀式を概念的に叙するも…” (역자주)

12) 허서(虛叙)와 실서(實叙)를 언어학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의미는 ‘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하고 가축은 다시 ‘소’와 ‘양’을 포함하며 소는 다시 ‘황소’와 ‘암소’를 포함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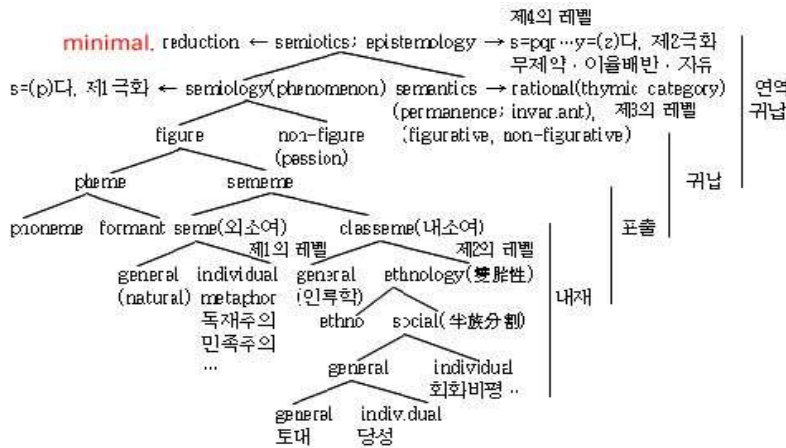
여기서 가축과 야생동물은 동물의 직접 하위성분이 되고 소와 양은 가축의 하위성분이 된다. 언어의 기능을 추상기능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휘체계에는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간에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하위의 단계까지 내려가면 언어는 없어지고 사물 혹은 사실만 남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계층적 대립관계를 A. Korzybski(1879~1950)는 추상의 사다리(abstract ladder)로 나타내고,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추상의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어 줄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적 관계를 상하관계(hyponymy)라고 하며, 이는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한쪽이 의미상 다른 한쪽을 포섭하거나 포섭되는 관계를 말한다. -주근옥,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

한 연구(서울: 시문학사, 2001), pp. 19~21. 참조하라. (역자주)

13) 마사오카시키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는 언어학과 기호학을 모른다. 그런데도 그 경지에 이르고 있다. 1.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Of course, it is not any type. Naturellement, ce n'est pas n'importe quelle parole. 물론 신화는 그저 평범한 형식(랑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형식(파롤)이다.” 그리고 시니피앙(signifier)과 시니피에(signified)의 중첩결합인 신화(myth)를 상기하라. SIGNIFIED(콘셉트)가 “物陰(ものかげ;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곳, 그늘)과 隱微(いんび; 겉에 잘 드러나지 않아 알 수 없음)”이다. -Roland Barthes (주근옥 역), 오늘날의 신화(한맥문학 통권 226호, 2009.06.25)를 참조하라.

Language (언어발음)	1. Signifier (시니피앙)	2. Signified (시니피에)
MYTH (신화)	3. Sign(기호) I. SIGNIFIER(형식)    II. SIGNIFIED(콘셉트) III. SIGN(의미작용)	

그리고 그레마스(A.J.Greimas)의 기호학을 상기하라. 다음 도표의 제3의 레벨이 “物陰(ものかげ)과 隱微(いんび)”인데, 그 무제약·이율배반·자유외지의 세계는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정념 등 육경(六境) 모두가 포함된다. 그리고 제4의 레벨(제2극화; semiotics)에서 최상위 인식론적 차원의 총체성의 복합동류체(complex isotopy: 귀납법과 연역법의 결합, 그러면서도 단순한 사실로만 보이는)로 통합된다. 주근옥, 한국문학의 판단중지를 위하여(조선문학 통권 282호, 2014.10.01. 보정본. 한맥문학 통권 231호, 2009.11.25), A.J.Greimas, Structural Semantics(주근옥 역), A.J.Greimas, On Meaning(주근옥 역), Algirdas Julien Greimas·Jacques Fontanille(주근옥 역), The Epistemology of Passions(주근옥 역), Cynthia Whitney Hallett, Minimalism and Short Story(주근옥 역), Warren



Motte, Small Worlds—Minimalism in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주근옥 역)를 참조하라. 2. 後素와도 상통한다. 後素는 後功·餘白·餘韻·토운·神話體系·深層構造·氷山技法(iceberg technic)이라는 유의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원적으로는 繪事後素와 素以爲絢, 素其位而行에 근거한다. 素는 文質彬彬의 質과 “素 猶見在也”의 보이는 것이 유예된 在, 그리고 “素富貴 行乎富貴”의 “어떤 처지에 놓이다”라는 뜻의 素이다. 鄭司農은 素란 회화의 質 즉 색채의 정신적 표현으로써 後功이라고 한다.朱熹는 絢과 대비하여 보이지 않는 質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四君子인 梅蘭菊竹은 絢이며 眞善美貞은 素, 즉 梅=善, 蘭=美, 菊=眞, 竹=貞이다. 그러나 이것도 보편성이므로 보다 더 개별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화가는 이 後素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진의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後素는 老子的 “谷神의 玄牝”과 莊子の “渾沌의 七竅” 또는 禪에서의 “見山祇是山”의 경지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주근옥, 後素의 美學(대전시단 창간호 1989. 12. 18)을 참조하라. (역자주)

14) 차반교겐(茶番狂言; ちゃばんきょうげん): 1. 손짓·몸짓으로 좌중을 웃기는 익살극. 2.

속이 뻥히 들여다 보이는 짓. (역자주)

15) 目かつら: 판지에 눈구멍을 뚫어 머리와 눈썹, 속눈썹 등을 그린 얼굴의 상반신만을 덮는 간단한 가면. (역자주)

16) 무코우지마(向島; むこうじま)의 무코우 다리 부근에서 팔고 있는 명물 쥐엄떡. 에도(江戸) 시대가 끝날 무렵에 만들어졌다. (역자주)

17) きぬかつき: 작은 토란을 껍질 채 썰어 그 껍질을 벗겨 먹는 가을의 요리, 안주. (역자주)

18) 「ホトトギス」는 합자회사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가 발행한 하이쿠 잡지. 메이지 1897(明治; めいじ 30)에 마사오카시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의 친구 야나기하라교쿠도우(柳原極堂; やなぎはらきよくどう; 작가, 각본, 에세이스트)가 창간했다. 나쓰메소우세키(夏目漱石; なつめそうせき)가 소설 “우리들은 고양이이다(吾輩は猫である; わがはいはねこである)”, “도련님(坊っちゃん)”을 발표했다. 메이지(明治; めいじ) 시기에 종합문예지로, 타이쇼우(大正; たいしょう)·쇼와(昭和; しょうわ) 시기에는 보수 하이쿠 문단의 최고 유력지로서의 용성을 과시했다. (역자주)

19) 1. ほととぎす(두견새). 2. 浅草寺(あさくさじ)의 쿠사쿠사(くさくさ), くさくさ; 화가 나가나 우올해서 기분이 좋지 못한 모양. 3. 女易者(じょえきしゃ); 여자 점쟁이. 4. 제야의 종; 百八の鐘(ひゃくはちのかね). (역자 주)

20) 참고자료: 1. 俳諧大要(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_俳句は文学の一部なり。文学は美術の一部なり。故に美の標準は文学の標準なり。文学の標準は俳句の標準なり。即すなわち絵画も彫刻も音楽も演劇も詩歌小説も皆同一の標準を以って論評し得べし。(하이쿠는 문학의 일부이다. 문학은 미술의 일부이다. 따라서 미(美)의 표준은 문학의 표준이다. 문학의 표준은 하이쿠의 표준이다. 즉 회화나 조각, 음악, 연극, 시가, 소설 모두 같은 표준으로 논평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 日本新聞社(明治 28=1895.10.22.~12.31)...Ezra Pound의 와동주의(Vorticism)에서의 관점과 아주 유사하다.

2. 正岡子規(まさおかしき)의 하이쿠(俳句).

柿(かき)食えば鐘(かね)が鳴るなり法隆寺(ほうりゅうじ).

감을 먹으면 범종이 울리도다. 호오류우지.

いくたびも雪の深さを尋ねけり.

몇 번이고 눈의 깊이를 더듬어 재보고.

枝豆(えだまめ)や月は糸瓜(へちま)の棚(たな)にあり.

가지째 깍은 풋콩과 달은 수세미의 시렁에 있네.

枝豆(えだまめ)や三寸(さんずん)飛んで口に入る.

가지째 깍은 풋콩이 튀어서 세치 입으로 들어가네.

鶏頭(ケイトウ)の十四五本もありぬべし.

그래도 맨드라미꽃 열 너댓 대궁이나 있구나.

ある僧の月も待たずに帰りけり.

어느 스님, 보름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는구나.

稻妻(いなずま)や桧(ひのき)ばかりの谷ひとつ.

번갯불이여 노송나무뿐인 한 가닥 골짜기.

菜(やさい)の花やばつとあかるき町はづれ.

유채꽃이 확 번져 환한 변두리의 마을.

門を出て十歩に秋の海広し.

문을 나서서 열 걸음만 걸어도 가을의 난바다. (역자주)

21) 西大寺会陽(さいだいじえよう): 일반적으로는 「벌거벗은 축제(裸祭り; はだかまつり)」로

유명하며, 심야에 본당의 복창으로부터 2개의 보목(宝木; しんぎ)이 투하되면, 웅장한 쟁탈전이 시작된다(오카야마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정월에 행해지는 수정회(修正会; しゅしゅうえ)의 결원행사가 발전했다고 해서 처음엔 부적표인 우옥지(牛玉紙; ごおうし)를 주었으나 서로 빼앗게 되어 약 490년 전부터 지금의 보목을 투하하게 되었다. (역자주)